

## 박시순의 『沔絨日記』 연구

임 현 정\*

### < 目 次 >

- |                    |                   |
|--------------------|-------------------|
| I. 서론              | III. 면불일기의 내용과 특징 |
| II. 박시순의 관직 생활과 일기 | IV. 결론            |

### < 국문 초록 >

『면불일기』는 朴始淳(1848~1907)이 沔川郡守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1894년 10월 13일부터 1895년 6월 20일까지 9개월 동안 官人으로서의 생활을 기록한 일기이다. 박시순의 字는 允元, 호는 菊人, 본관은 咸陽이다. 함양 박씨는 다수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고 대대로 벼슬에 종사한 현달한 가문이다.

박시순은 安孝濟(1850~1916)의 상소를 거르지 않고 올린 일로 인해 탄핵을 받아 8월 29일에 함경도 洪原에 유배되어 약 10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한다. 얼마 뒤 특별 사면으로 복직되지만 다시 4개월만에 면천 군수에 제수된다. 면천은 박시순의 8대조 무덤이 있는 곳이며, 여러 친족 등 다수의 지인이 살고 있던 곳이다. 이러한 지역적 연고로 인해 면천에 부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면불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은 박시순이 교유한 인물에 대한 것이다. 지역의 인사와 친구, 친족과의 만남에 대한 내용 및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에 대한 내용이 다수 등장한다. 또한 면천에 부임하고 나서 수행한 관리로서의 직무를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기우제를 지내는 과정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당시 유행했던 돌림병을 퇴치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모습

\*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연구원 / dkssud7234@naver.com

도 확인할 수 있다.

沔川의 14개 面의 이름을 넣어서 지은 「沔陽賦」와, 당진시의 유적 1호인 君子亭에 대한 기록이 있어 역사를 고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면천지역의 향토사 복원과 연구를 위한 원천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주제어】 박시순, 면불일기, 면천, 면양, 당진

## I. 서론

『沔絃日記』는 朴始淳(1848~1907)이 沔川郡守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1894년 10월 13일부터 1895년 6월 20일까지 9개월 동안 관인으로서의 생활을 기록한 일기이다. 박시순의 字는 允元, 호는 菊人, 본관은 咸陽이다. 고종 16년(1879)에 문과에 급제하여 西學敎授, 右通禮, 右承旨, 면천 군수, 任實郡守, 長淵郡守를 역임하였다. 박시순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명문가인 咸陽朴氏 출신이다. 함양박씨는 다수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고 대대로 仕宦에 종사한 현달한 가문으로,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朴世茂(1487~1554), 朴大立(1512~1584), 朴慶後(1644~?)가 있으며, 근대의 인물로는 朴烈(1902~1974)이 있다.

박세무는 1531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承文院參校, 安邊府使, 軍資監正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童蒙先習』이 있으며, 괴산의 華巖書院에 제향되었다. 박대립은 李滉의 문인으로, 1540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수십년 묵은 訟事를 종결지은 일로 명성을 얻었으며, 명나라에 서장관으로 다녀오기도 하였다. 대사간, 대사헌, 이조판서, 형조판서,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박경후는 숙종의 즉위를 축하하는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 주서, 홍문관 수찬, 사간원 정언 등을 역임하였고, 통신사 종사관으로 일본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글씨를 잘 써서 당대에 이름이 있었으며, 楊州와 河陽에 그의 遺筆이 남아있다.<sup>1)</sup> 박열은 1923년 비밀결사인 不逞社를 조

직하여 일본 황태자 결혼식에서 일본 천황을 제거할 계책을 꾀하였던 독립운동가이다. 그 뒤 조직이 발각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는데 1945년 광복을 맞아 22년 2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면불일기』에 따르면 박시순의 선조 묘소는 경기도 始興과 면천의 元寺洞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흥 九老里에는 7대조, 6대조와 아버지의 산소가 있고 그 근처에 5대조와 고조할머니의 묘소가 있어 박시순이 서울에서 면천으로 오는 길에 성묘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면천에 부임하고 이를 뒤인 11월 18일은 아버지의 기일이었는데 원사동에 있는 8대조의 산소에 성묘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원사동 산소의 묘지기를 만나거나 직접 성묘를 가는 일이 이따금씩 보인다. 『면불일기』에 기록된 관련 일기는 다음과 같다.

마침내 작별인사를 하고 시흥 九老里의 묘소에 이르렀다. 큰아들 東翼이가 아내의 행렬을 따라 먼저 도착하였다. <중략> 이른 아침에 7대조 牧使公, 6대조 參判公과 아버지의 산소를 배알하였다. <중략> 5대조 監役公과 고조할머니 이씨의 산소는 산기슭 너머에 있는데 자식을 장사 지낸 곳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차마 바라볼 수가 없어 뵈지 않고 곧바로 돌아갔다.<sup>2)</sup>

元寺洞 8대조 산소의 묘지기 金八峰이 문안하였다.<sup>3)</sup>

마침내 元寺洞 산소의 築墳과 掃墳을 하는 행렬을 꾸려서 蓀洞 尾力堂路에 이르렀다.<sup>4)</sup>

새벽에 일어나 元寺洞으로 성묘하러 갔다.<sup>5)</sup>

1) 김학수(2003). 8면.

2) 『沔紱日記』 1894년 11월 12일·13일. “遂告別, 行至始興九老里墓下, 長兒東翼, 隨內行而先到. <중략> 早朝拜謁七代祖牧使公·六代祖參判公, 及先考山所 <중략> 五代祖監役公及高祖妣李氏山所, 在於越麓, 而以羸博之在傍, 不忍舉目, 未謁而徑還.”

3) 『沔紱日記』 1894년 11월 18일. “元寺洞生八世祖山所墓直金八峰, 來問.”

4) 『沔紱日記』 1895년 3월 15일. “遂作元寺洞山所築掃之行, 至蓀洞尾力堂路.”

5) 『沔紱日記』 1895년 7월 8일. “曉頭作元寺洞看楸之行.”

원사동의 위치는 현재 정확히 고증하기 어려우나, 성묘를 가기 위해 蓀洞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있으며, 일기의 정황상 비교적 쉽게 원사동으로 왕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천군에 포함된 고을일 것으로 추정된다. 손동의 위치는 '2. 면불일기에 나타난 관료의식'에 붙인 '沔川郡地圖'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박시순의 일기를 모두 수합하고 정순우, 김학수의 연구사를 붙여 1999년도에 『韓末 官人 朴始淳日記』를 발간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박시순에 대한 정보가 극히 드문 반면에 그의 일생이나 일기의 종류에 대하여 자세하고 간결하게 기록하여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행장이나 묘지문 등의 기록이 남아있었더라면 본고를 작성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이지만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승정원일기』와 『고종실록』, 그리고 박시순이 임실 군수 시절 작성한 『雲紘日記』를 참고하였다. 추후에 관련 논문들과 번역이 활발히 진행되어 더 자세한 내용이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면천은 많은 관료들이 유배를 오거나 수령으로 부임하였던 지역으로,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저작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 朴趾源의 『沔陽雜錄』이나 金允植의 「沔陽行遣日記」가 대표적이다. 『면양잡록』은 연암 박지원이 1797년 7월부터 1800년 8월까지 면양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기록한 책이고 「沔陽行遣日記」는 김윤식이 면천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1893년부터 1894년까지의 기록이다. 『續陰晴史』의 권 7에 수록되어 있다.

본고는 첫째, 『면불일기』의 내용을 토대로 박시순의 생애와 의식을 파악하고, 기타 저작에 대해 소개하여 그 특징과 가치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둘째, 구한말 많은 변화와 혼란한 시기의 당대 사회적 상황 및 관인으로서의 모습과 처세 의식을 살펴보고, 교유한 인물의 범위와 성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셋째, 『면불일기』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면천의 지역적 특징과 역사적 사실, 유적지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면불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면천이라는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확인하여 현대 지역 향토사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II. 박시순의 관직 생활과 일기

박시순은 고종 16년(1879)에 문과에 급제하여 西學敎授, 右通禮를 역임하였다. 그러던 중 당시 승지였던 박시순이 安孝濟(1850~1916)의 상소를 거르지 않고 올린 일로 인해 정언 金萬濟의 탄핵을 받는 일을 겪는다. 조선의 왕들은 대대로 삼국 시대 촉한의 명장인 關羽를 모시는 關王廟를 추송해 왔고, 고종 또한 정기적으로 致祭하였는데, 안효제가 상소하여 궁중에서 기도를 올리는 일은 신령을 모독하고 사당을 더럽히는 행동임을 지적하고, 대궐 안에서의 齋戒와 제사 등을 마치 불교 행사를 하듯 하는 행동의 부당함을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언 김만제는 안효제가 무엄하고 거리낌 없이 상소를 올려 전하를 지적하고 귀신을 모욕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승지 박시순은 안효제와 같은 마을에 이웃해 살면서 평소 맺었던 친분으로 서로 공모를 하여 상소를 올린 것이라고 엮어 붙여서 두 사람을 모두 流刑에 처하게 하였다. 이것이 1893년(고종 30) 8월의 일이다.<sup>6)</sup>

이후 박시순은 8월 29일에 함경도 洪原으로 유배하라는 명을 받고 1894년 6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 『北征日記』는 바로 이 시기에 흥원에서 유배 생활을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1894년 6월 8일에 특별 사면으로 우부승지에 복직되지만 4개월만인 10월 13일에 면천 군수에 제수된다. 면천은 박시순의 8대조 무덤이 있는 곳이며, 여러 친족 등 다수의 지인이 살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연고로 면천에 부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895년(고종 32) 6월 20일 任實郡守에 임명되면서 박시순은 9개월 동안의 면천 생활을 마무리한다. 그 후 약 1년 동안 長淵郡守로 재직하다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平山으로 돌아온다.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부여로 이주하여 3년을 지내고 1907년에 60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이후 3종형인 朴鼎錫이 후손이 없자 자신의 장자 朴東翼을 그의 후사로 들이는데, 양자로 나간 박동익이 박시

6) 『高宗實錄』 30年 8月 21日·26日.

순의 유물을 관리함에 따라 손자 朴萬熙를 거쳐 증손 朴炳鎬가 본 일기를 소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7)</sup>

박시순은 일생동안 여러 종류의 일기를 남겼는데, 『면불일기』를 제외한 박시순의 기록물을 대략적으로 소개하자면, 임실 군수 재직 시절인 1895년부터 1897년 사이에 작성한 『운불일기』, 장연군수 재직시절인 1904년 음력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남긴 『서불일기』, 그리고 임실군수 재직 시절인 1895년 9월 1일부터 1897년 2월 29일 사이의 임실군 민원 처결 기록을 초록한 『民訴冊』, 역시 임실군수 재직 시절인 1896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각종 공문을 초록한 『官旨冊』이 있다. 이상만 보더라도 박시순은 굉장히 기록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들인 朴東翼(1868~1931)도 아버지의 이러한 습관을 답아서인지 『量晴較雨』라는 일기를 남겼다. 박시순이 임실 군수로 재직하던 당시인 1897년 1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쓴 일기인지라 박시순에 관한 내용도 더러 존재하기는 하지만 매일같이 기록한 것은 아니라 분량이 많지 않다.

### Ⅲ. 면불일기의 내용과 특징

#### 1. 교유 인물의 범위와 관계

『면불일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내용은 박시순이 교유한 인물에 대한 것이다. 매일같이 지역의 인사 및 친구, 친족이 쉴 새 없이 찾아오고 편지를 보내온다. 이처럼 내용의 대부분이 주변 인물들과의 만남, 또는 편지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박시순이 어떤 인물과 많이 교유하였는지를 알 수 있음과 동시에 교유한 인물의 범위와

7) 정순우·김학수(1999), 16면.

성향에 대해 파악해볼 수 있다.

먼저 『면불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을 꼽자면 '澹安에 사는 친구 韓興教'와 '친구 李鍾大'를 들 수 있다. 특히 한홍교는 박시순이 면천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친구로, 그 친분이 매우 돈독했음을 알 수 있는 인물이다. 『운불일기』에도 洛村 진사 한홍교에게 편지와 선물이 왔다는 내용<sup>8)</sup>과, 새해를 맞이하여 한홍교가 두 아들을 보내었기에 立春帖을 적어 주었다는 내용<sup>9)</sup>이 보인다. 홍원에 유배되었던 것을 제외하면 줄곧 중앙에서 관직생활을 했던 박시순에게 면천에 살고 있는 벗이 있다는 것이 특이한데, 면천에 선산이 있고 다수의 친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곳에 함양박씨가 하나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유년시절을 함께한 벗들이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洪州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金福漢(1860~1924)은 『면불일기』 전체 분량 중 10여 회 정도 언급되는데 당시 홍주 校洞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직접 만난 것은 2회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편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하였다.

면천에 오고 나서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으로 종종 언급되는 사람으로는 金允植(1835~1922)과 魚允中(1848~1896)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박시순이 면천으로 오기 전 함께 조정에서 활동하였던 인물이다. 金允植은 일전에 면천군으로 정배를 왔던 경험이 있는 인물로,<sup>10)</sup> 그가 면천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기록한 『沔陽行遣日記』는 당시 면천의 상황을 살펴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김윤식은 1894년 6월에 다시 서용되어 조정으로 돌아갔고 박시순은 그해 10월에 면천에 부임하였으니 두 사람은 몇 개월의 격차를 두고 면천에 거주하게 된 셈이다. 魚允中은 박시순이 면천 군

8) 『雲紱日記』 1895年 8月 10日. “洛村韓進士興教致書, 饋以川魚, 答謝之.”

9) 『雲紱日記』 1897年 1月 2日. “韓進士興教, 遣其胤二秀才, 問新年起居, 有來乞立春帖, 戲題一聯.”

10) 당시 金允植은 통상 사무 아문의 督辦으로서 국가간의 교류를 담당하였는데 사채 문서에 도장을 잘못 찍어 이웃 나라의 비웃음을 샀다는 죄목으로 沔川郡에 定配되었다. 6년 뒤인 고종 30년에는 放逐鄕里하라는 명을 받았다가 그해 6월에 다시 서용되었다. 『高宗實錄』 24年 5月 30日, 30年 2月 14日.

수로 오기 전 승지로 재직 중에 있을 때 兩湖直撫使의 직책으로 함께 조정에 있었던 인물이다. 박시순이 金萬濟에게 탄핵을 당하던 시기에 어윤중 또한 선무사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만제에게 탄핵을 당하여 경상도 延日縣에 정배된다.<sup>11)</sup> 하지만 박시순과 달리 어윤중은 다음 해 4월에 석방된 뒤 다시 승지에 복직되어 줄곧 내직에 종사한다. 어윤중은 『면불일기』에서 10여 회 언급되는데 모두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다.

박시순이 친구를 제외하고 가장 자주 만났던 사람은 같은 고을의 관리나 근처 고을의 수령, 석사, 유생 등으로, 직무나 친분 때문에 자주 만남이 있었던 인물들이다. 대표적으로는 도유사 具春書, 沈國慶, 석사 洪寬厚, 李鉉永, 도사 安永植, 손동 면장 沈宜晚 등을 꼽을 수 있다. 모두 20회 안팎으로 매우 빈번하게 언급되는 인물들이다. 도유사 구춘서는 박시순이 면천에 부임한 초기에 도유사를 지냈던 인물이고, 초기에 석사로 다수 등장했던 심국경은 중반부부터는 구춘서의 뒤를 이어 새로 부임한 도유사가 되는 인물이다. 심국경과는 향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시로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종종 술자리를 함께하며 어울리기도 한다. 석사로 자주 등장하는 인물로는 外餘里에 사는 석사 洪寬厚, 德山에 사는 석사 李鉉永이 있다.

曹斗煥(1848년~1915)<sup>12)</sup>은 당시 덕산 군수로 있던 인물로, 박시순과 나이도 같고 부임한 시기도 비슷하다. 그런 인연 덕분인지 박시순은 조두환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다음은 두 사람이 며칠 간의 여정을 함께한 뒤 헤어지기 전에 덕산 군수가 지어 준 七言絕句 2수에 대한 보답으로 박시순이 지은 화답시이다.

11) 魚允中은 국가의 위급한 시기에 선무사라라는 직책의 임무를 저버리고 전주金州에서 기생을 끼고 노는 등 행락을 즐기고, 부모의 무덤을 돌보느라 마을에 폐를 끼쳤으며, 과도한 형벌을 가하여 두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다는 죄목으로 정인 金萬濟의 탄핵을 받아 경상도 延日縣에 定配되었다. 『高宗實錄』 30年 8月 21日·25日.

12) 본관은 昌寧, 자는 運中, 호는 春東 또는 黃江이다. 1894년 10월 10일에 덕산 군수로 단부되었다. 『承政院日記』 高宗 31年 10月 10日.

紆紱從游沔水濱  
 聯鑣來問錦江津  
 文章八斗曾雷灌  
 及對眉稜淨不塵  
 萍鄉蘭契不全疎  
 把酒相論意有餘  
 記得臨岐手分恨  
 天寒歲暮復何如

인끈 차고 먼수 가에서 함께 노닐다가  
 나란히 말 타고 와서 금강 나루를 물었지  
 훌륭한 문장 솜씨 그 명성 일찍이 들었는데  
 만나보니 인품도 티 없이 맑구나  
 타향에서 난초 사김 전혀 소원하지 않으니  
 술잔을 잡고 논의함에 마음은 넉넉하다네  
 갈림길에서 이별의 한을 적는데  
 날은 춥고 해도 저무니 어이할까

< 1894년 12월 19일 일기 中 >

박시순은 12월 16일에 덕산읍에 도착하여 덕산 군수를 만나 함께 객점에서 유숙을 하고 車同嶺을 넘기도 하였으며, 금강 나루를 거닐기도 한다. 덕산 군수에게 받은 시가 『면불일기』에 실려 있지 않아서 아쉬운 면이 있지만, 박시순의 화답시만 보더라도 노정을 함께하며 두 사람의 돈독한 관계와 헤어짐을 앞둔 아쉬움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靈塔寺 僧 月海가 있다. 영탑사는 충청남도 당진군 沔川面 성하리 象王山에 있는 절이다. 통일신라 말기 道詵國師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시순이 처음 흥원으로 유배를 가게 된 이유가 조정에서 불교행사를 행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안효제의 상소를 올린 일 때문이었다. 이는 박시순이 불교에 대해 평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 그가 면천에서 와서는 승 월해를 약 20회나 언급할 정도로 자주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고을에 전염병이 유행하려 할 때는 월해를 불러다가 병을 퇴치하는 의식을 치르기까지 하였으니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월해는 박시순이 면천으로 부임한 초기부터 끝까지 줄곧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면천에 오기 전부터 알고 지낸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김윤식의 「면양행견록」에도 김윤식과 함께 고을을 탐방하고 교류하였던 사람으로 월해가 드물게 언급되는데, 이것으로 보아 김윤식의 소개로 월해와 친분이 생기게 되었을 경우를 추측해볼 수 있다.

영답사 승 월해는 『면불일기』 초반부에는 '海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다가 중후반부에서는 '월해'로 그 명칭이 바뀐다. 『면불일기』 전체를 통틀어 '월해'라고 언급된 것은 총 11회, '해월'이라고 언급된 것은 총 9회이다. 본고에서는 김윤식의 「면양행견록」에 '월해'라는 명칭으로만 4회 언급된 것에 근거하여 영답사의 승은 '해월'이 아닌 '월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작성하였다. 단순한 기록의 오류인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인물들을 통해 박시순이 교유한 인물의 범위와 성향을 정리해 보자면, 가장 자주 만나고 편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언급된 한홍교, 이종대 등은 유년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 것으로 보이고, 독립운동가 김복한이나, 조정 신료인 김윤식과 어윤중은 가끔 언급되기는 하였지만 편지를 주고받은 정도에 지나지 않아 많은 친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 가장 자주 교유한 사람은 덕산 군수 조두환이다. 조두환은 박시순과 나이가 같고 비슷한 시기에 부임한 사람으로, 함께 고을 유람을 다녀온 사실과 시를 주고받은 기록을 통해 돈독한 친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답사 승 월해는 김윤식을 통해 인연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특히 고을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함께 기도를 올렸던 것으로 보아 신뢰를 가지고 있는 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친족이나 도유사, 면장, 이장, 향교의 유생, 석사 등이 다수 등장하는데 대부분 박시순과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 2. 면불일기에 나타난 관료의식

1894년 11월 12일에 서울을 떠나 면천으로 출발한 박시순은 5일 간의 긴 노정 끝에 11월 16일에 면천에 도착한다. 면천에 도착하자마자 쉴 새 없이 찾아오는 손님과 편지를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박시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향교에 가서 재실을 살펴보고, 난리를 겪은 고을의

무너진 건물을 살펴보는 일이었다. 수령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을 꼽자면,客舍에 가서 望賀禮나 朔禮를 거행한 일, 창고를 열어 환곡을 봉납한 일, 초토사에게 狀을 올린 일, 향교의 유생에게 시험을 치르고 채점한 일, 향교에 가서 강의를 한 일, 각 방을 點考한 일 등을 들 수 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도 수령으로서 자발적으로 백성들에게 솔선하는 모습을 보였던 일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조정에서 흑색 두루마기[周衣]를 입는 것에 관한 개정된 조령이 내려왔는데<sup>13)</sup> 백성들이 낮설어 하며 따르지 않자, 박시순이 앞장서서 조령을 실천한 것이다.

중간에 부모의 상복喪服에 대한 칙령勅令이 있었고, 관문關文이 도착한 것은 이미 수십 일이 되었다. 이에 흑색 두루마기[周衣]를 입어서 온 고을의 관리와 백성에게 솔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유先儒들이 말하기를 “오늘날 사람이 되어서는 마땅히 오늘날 사람들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니, 또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sup>14)</sup>

< 1895년 5월 16일 일기 中 >

고종은 1895년 開國 504년을 맞이하여 3월 25일부터 재판소 구성법, 내각 관제, 중추원 관제, 법부 관제, 학부 관제 등 다방면에 대한 칙령을 반포하고 4월 1일과 윤5월 1일 부터 시행할 것을 명령한다.<sup>15)</sup> 박시순이 상세한 경위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막을 알기는 어렵지만 고종의 이 칙령을 배경으로 언급된 일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면불일기』에는 기우제를 지내는 모습이 총 7번 등장한다. 처음 기우제를 지낸 것은 윤5월 22일이다. 그 뒤로 25일, 27일, 그리고 6월 1일, 4일, 6일, 8일에 걸쳐 기우제를 지내는데, 기우제문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

13) 이해 3월에 고종은 開國 504년 勅令 제67호로 “周衣는 관리와 백성들이 똑같이 검은색 종류로 하라.”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다. 『高宗實錄』 32年 3月 29日.

14) 『沔紘日記』 5월 16日, “間有憂服之勅令, 關則已數十日矣. 乃着黑色周衣, 爲一邑吏民之先. 先儒有言曰, 爲今人, 當服今人之衣, 亦復奈何奈何.”

15) 『高宗實錄』 32年 3月 25日·26日·30日, 4月 5日, 5月 8日·19日·26日.

기우제를 지내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기우제는 늦은 밤 사직단에서 행해졌다. 그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伏以	삼가 아뢰입니다
維社維稷	오직 사와 직은
司土司穀	흙을 맡고 곡식을 맡는 것인데
胡天不雨	어찌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枯我禾菽	우리들의 벼와 콩을 매마르게 하시는지
若過時日	만약 비 올 시일이 지나면
無望秋熟	가을에 곡식이 익는 것을 바랄 수 없으니
可哀非民	안타까운 것은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咎在司牧	허물은 목사를 맡은 이에게 있습니다
敢具菲薄	감히 별것 아닌 제물을 마련하여
虔誠齊宿	정성을 다하고 재속합니다
亟賜滂沱	빨리 시원한 비를 내려주시고
益以賑深	가랑비를 더해 주신다면
歲仍大和	한 해가 이에 크게 조화롭고
神人共福	신과 사람 함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 1895년 윤5월 23일 일기 中 >

하늘이 감응한 것인지 다음 날인 23일 아침에는 약간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단하지 않고 이어서 두 번째 기우제를 지낸다. 두 번째 기우제는 蒙山에서 행해졌다. 몽산은 泗川郡의 북쪽 4리 즈음에 위치하고 있는 면천의 主山이다. 세 번째 기우제는 靈塔寺가 있는 象王山에서 시행하였다. 다행히 다음 날 아침에 약간의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가뭄은 여전하였다. 바로 多佛山에서 네 번째 기우제를 진행하였다. 다불산은 면천면 죽동리에 위치한 산으로, 면천면 서쪽으로 10리 즈음에 있다. 산이 험하고 제대로 된 길이 없어 땀을 비오듯 흘리며 등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음날인 6월 2일은 절기상으로 大暑에 해당하는 날이었는데 낮에 구름이 끼고 비가 오기는 했지만 매우 소량이었다. 6월 4일에는 전날 저녁

체기와 설사로 고생한 몸을 이끌고 다섯 번째 기우제를 지낸다. 다섯 번째 기우제는 鰲島에서 시행하였는데, 오도는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 용장천 옆에 있는 자라모양으로 생긴 섬이다. 현재는 남아있지 않은 오도에 기우제를 지내러 간 일에 대하여 박시순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저녁 조수가 막 시작되어 여정을 진행할 수 없었다. 조수가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출발하였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다. 햇불을 든 마을 주민 수십 명이 조수 빠진 뒤 미끄러운 진흙길을 앞에서 인도하였는데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웠다. 마을 주민들이 수레를 붙들고 호위하여 힘겹게 고생하여 섬을 올라갔는데, 섬은 작아서 한 주먹 크기도 되지 않았다. 우뚝 솟아 기괴하여 가히 빼어난 곳이라고 할 만하였다.<sup>16)</sup>

위의 묘사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에는 갯벌이 펼쳐져 있고 바닷물도 들어오던 섬이라서 오도항이라는 항구를 건설하기도 했다고 한다. 송산면 당산리 오도회관 앞에는 당시 축향준공기념비로 세웠던 비석이 세워져 있어 항구가 있었던 자리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조선시대에서 日氣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날씨가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天道를 점쳤던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기후가 좋지 않으면 국왕도 자신의 寡德을 탓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sup>17)</sup> 박시순 또한 수령으로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가뭄이 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기우제문에는 백성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6월 6일에는 아침부터 가랑비가 내렸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양은 아니었으므로 이날 사직단에서 여섯 번째 기우제를 행하였다. 일곱 번째 기우제의 축문은 실려 있지 않으므로 여섯 번째 기우제문이 『면불일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축문이다. 다행히도 이날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가랑비가 흩뿌렸다. 하지만 역시 만족할 정도로 내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인 8

16) 『沔紱日記』 6월 4日. "夕潮方生, 不可前進, 俟潮退而發, 日已暮矣. 洞民持炬數十頭, 前導潮後泥滑, 寸步難行, 洞民扶護肩輿, 艱辛上島, 島之小, 不能一拳, 突兀奇怪, 可謂絕處也."

17) 심경호(2020), 396면.

일에 일곱 번째 기우제를 지냈다. 그러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다음 날까지 비는 오지 않고 오히려 날씨가 폭폭 찌는 듯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10일에는 아침부터 소낙비가 내렸고 다음 날에도 비가 쏟아져 도랑이 넘쳤다. 안도하는 마음과 함께 당시의 날씨를 박시순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설령 이 비가 수십일 전에 내렸다면 거의 대풍년을 기대했을 것인데, 뒤늦게 어찌 이때에 오는가. 하루 종일 빗발이 삼대 같고 천둥이 진동하고 번개가 치다가 저녁이 된 후에 조금 그쳤다.<sup>18)</sup>

일곱 번째 기우제를 지낸 뒤로는 며칠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심지어는 다리 위로 강물이 넘쳐 흘러 망하례를 거행하러 가지 못하는 일까지 생긴다. 하지만 오랫동안 가물었던 탓인지 다행히 홍수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첫 번째 기우제를 지낸 윤5월 22일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 기우제를 지낸 6월 8일 까지 약 20일 동안의 일기에는 특히 날씨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조선시대의 법전인 『대전회통』의 「禮典 祭禮」편에 따르면 기우제는 최대 12회 까지 지내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sup>19)</sup> 지금까지 미리 날씨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인식의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기우제를 지내야 비가 내린다고 믿었던 당시에는 법령으로까지 만들어 기우제를 신성시하였다. 이와 같이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으면 수령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곤 하는데 기우제를 마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박시순은 또 다시 제사를 지내게 된다. 바로 돌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였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 『沔絃日記』 6월 10日. “使此雨在於數十日之前 庶望有秋 而時晚何及. 終日雨脚如麻. 雷隱電閃. 至昏後而少休.”

19) 祈雨祭는 1차로 三角山, 木覓山, 漢江에 3품의 당하관을 보내 지낸다. 2차로 龍山江과 楸子島에 중2품의 관원을 보내 지낸다. 3차로 風雲雷雨山川壇, 雩祀壇에 중2품의 관원을 보내 지낸다. <중략> 11차로 종묘에는 의정을 보내 지내고, 석척동자를 지내는 春塘池 가에는 무신인 중2품의 관원을 보내 지낸다. 남쪽 문은 닫고 북쪽 문은 열며, 시장을 옮긴다. 12차로 五方土龍祭를 3품의 당하관을 보내 지낸다. 『大典通編 禮典 祭禮』

근래 도성에서 괴이한 기운이 크게 일어나 사망한 이들이 매우 많다고 들었다. 가까운 지역에서도 또한 종종 그러한 일이 있어서 민심이 걱정하며 두려워하였다. 이에 靈塔寺 승 月海로 하여금 石佛에 기도하게 하고 관청에 명하여 쌀을 주어 제물을 갖추게 하였다. 또 座首와 公兄으로 하여금 蒙山에 제사를 올려 백성들을 구원하여 살릴 계책이 되게 하였다. 생각건대 이처럼 덕이 부족한 내가 한 지역의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아 政事로도 남에게 믿음을 주기에 부족한데 어찌 감히 신령의 감응을 바라겠는가.<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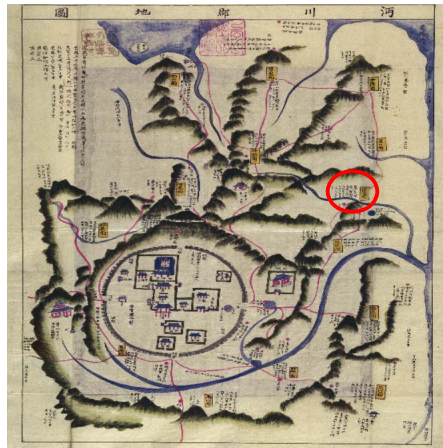
병의 증상이 어떠했는지, 원인과 치료방법은 어떠했는지 등 상세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당시의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근처의 지방에서도 같은 증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을 보면 전염병이 돌았던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영탑사의 僧인 월해를 불러서 기도를 올렸다는 점이다. 월해와 박시순의 관계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꽤나 돈독한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는 별개로 조정에 있을 때는 불교를 배척하는 것으로 보였던 박시순이 지방에 와서는 승을 불러다가 전염병 퇴치 기도를 올렸으니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축문은 다음과 같다.

<상략> "지금 기괴하고 사악한 기운이 유행하고 번져서 이 병에 걸리면 회복되어 살아나는 자가 거의 드물다고 하니 온 고을의 사람들이 낮이나 밤이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중략> 앞드려 생각건대 훌륭한 신령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어린아이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치료해주시고, 더위와 습기에 병이 든 자는 반드시 조화롭게 하여 풀어주십시오. <중략> 그렇게 하면 백성이 장수를 누리는 고을이라는 칭송이 어찌 한때에만 있겠습니까. 또한 만세토록 할 말이 있을 것이니, 아아! 성대하고 지극합니다."<sup>21)</sup>

20) 『沔紱日記』 1895년 6월 24일. "近聞都下怪氣大熾 死亡殆多 隣境亦往往有之 民情憂懼 乃使靈塔寺僧月海 禱祈于石佛 令官廳給米爲具 又使座首及公兄 祈祭于蒙山 爲生靈拯救之計 願此涼薄 任一境人民之責 政不足以孚人 何敢望神之感應也."

21) 『沔紱日記』 1895년 6월 24일. "<상략> 聞今沔沔之氣 流行熾肆 有罹於斯 回甦幾希 晝宵憂慮 小大惟均 <중략> 伏惟巨靈 矜憐其生息 保護如嬰兒 食飲之失攝者 必救療之 暑濕之受傷者 必和解之. <중략> 壽考之域 奚徒頌惠於一時 亦將有裔於萬世 猗歎其盛矣至矣乎云云."

이 시기 『고종실록』에는 콜레라가 전염병으로 돌았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중앙과 지방에 전염병이 번저감에 따라 內部수 제4호와 제5호, 〈虎列刺病消毒規則〉과 〈虎列刺病豫防及消毒執行規程〉를 공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22)</sup> 콜레라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종 16년(1879) 6월 일본에서 유행한 콜레라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무렵이라고 한다. 처음 일본인을 통해 부산에 들어와 번지기 시작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를 '취통(Chi-tong)'이라 불렀다. 鼠疫(쥐가 옮기는 역병)이라고 불렀고, 일본인들은 '虎列刺'라고 불렀다고 한다.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친일파 李能和在 '나는 11세로 충북 괴산에 있었는데 사람마다 흉고추를 머리에 찌르고 또 집집마다 바가지로 당나귀 소리를 내어 疫鬼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민간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였다.<sup>23)</sup> 『면불일기』의 이날 기사 또한 『고종실록』에 콜레라가 기록된 시기와 같은 시기인 것으로 보아 콜레라에 대한 내용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다행히 이날 기록 이후로는 더이상 전염병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크게 번지지 않고 해결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2) 『高宗實錄』 1895年 閏5月 14日, 6月 4日.

23) 기창덕(1995), 2면.

『면불일기』의 가장 끝부분인 별지에는 을미년(1895년, 고종32) 6월에 沔川 14개 面의 이름으로 지은 「沔陽賦」가 있다.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의 1872년(고종 9년)에 작성된 '沔川郡地圖'<sup>24)</sup>에 따르면 먼천군의 면 이름은 (황색 직사각형 표시 우측 상단부터) 松山, 甘泉, 中興, 昇仙, 草川, 淨界, 孫洞, 松巖, 德頭, 嘉火, 邑內, 竹林, 泛川, 馬山이 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박시순의 선조 무덤이 있는 元寺洞은 孫洞과 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른쪽 지도에서 그 위치를 대략이나마 확인해 볼 수 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손동이다.

〈沔陽賦〉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登蒙山而四望	兮몽산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寔風氣之攸華	참으로 풍속이 아름답고 빛나네
環之城而逶迤兮	둥근 성이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匠人烟於邑內	고을 안[읍내면]에 민가 많구나
鳳凰翔于千仞兮	천 길 높이에 봉황이 날아올라
戴德頭而覽輝	덕두[덕두면]를 머리에 이고 환히 빛나네
鳴鶴舉于雲霄兮	우는 학 구름 낀 하늘에 일어나
借棲息於松巖	소나무 바위[송암면]에서 서식하고
侯千戶而素封兮	천 호를 맡아 소봉하니
有脩脩之竹林	빼어난 대나무 숲[죽림면]이로다
揚之水而石皓兮	물결 느릿느릿 흐르고 바위는 희니
點無塵於淨界	맑은 지경에 티끌하나 없네[정계면]
其間出以駿才兮	그 사이에 훌륭한 인재 나오니
鍾馬山之秀氣	마산의 빼어난 기운 모였구나[마산면]
香遠聞於蓀洞兮	향기가 창포 골짜기[손동면]에서 멀리 나니
固衆芳之所在	참으로 모든 꽃이 있는 곳이니
時適當乎太平兮	때가 태평한 시절에 맞으니
若殷周之中興	은나라 주나라의 중흥[중흥면]과 같구나

24)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http://kyudb.snu.ac.kr/main.do?mid=GZD>

天降康而穰穰兮	하늘이 태평함을 내려줘 풍년드니
頌嘉禾之呈祥	좋은 곡식[가화면]의 경사 칭송하네
明良苑其際會兮	환하고 좋은 동산에서 만나니
廣招隱於松山	송산[송산면]에서 널리 은자를 불렀네
士幸生夫斯世兮	선비는 다행히 이 세상에 태어나
飲列鼎之甘泉	술을 늘어놓고 감천[감천면]을 마시네
嘯茶爐而鍊丹兮	차 화로를 데워 연단을 만드니
白日可以昇仙	백일에 신선세계 올라갈 수 있구나[승선면]
聽農談乎四隣兮	농사 이야기를 사방 이웃에게 들으니
飲犢歸於草川	송아지 초천[초천면]에서 물 먹이고 돌아오네
尋盟好而忘機兮	맹약한 좋은 사람 찾아가 기심 없으니
泛川上之鷗鷺	범천[범천면] 가에 갈매기 해오라기 노니네
惟茲土之儘美兮	오직 이 땅이 지극히 아름다워
述以文者太守	서술하여 문장을 짓는 자 태수라네

면양의 14개 면의 이름을 모두 넣어서 賦를 지을 생각을 착안해 냈다는 면에서 면천에 대한 애정이 돋보이는 글이다. 『면불일기』에는 박시순이 면천에 부임하던 첫날부터 면천의 곳곳을 찾아다니며 관리하는 모습이 일기에 자주 보이는데, 자신이 담당하는 고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관찰한 결과가 이 부에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 3. 면불일기의 의미와 가치

『면불일기』는 면천 군수로 있었던 9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기를 기록했다는 면에서 가치가 있으며, 특히 지방관의 업무에 대해 빈번하고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 조선시대의 지방관의 업무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조선시대 면천군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당진에 편입되어 면천면이 되었다. 면천은 행정구조상 홍주를 중심으로 하는 내포지방의 중심권에 자리하여 예산, 덕산, 태안등 주변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면천을

주제로한 기록물로는 朴趾源이 면양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기록한 『沔陽雜錄』과 金允植이 1887년부터 1894년 까지 면천으로 유배를 와서 기록한 『續陰晴史』의 「沔陽行遣日記」가 있다.

『면양잡록』은 연암 박지원이 1797년 7월부터 1800년 8월까지 면천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과 牧民官으로서 필요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원래는 전 8책으로 구성되었는데 현재 1권과 5권은 落帙되고 2, 3, 4, 6, 7, 8의 6권만 전해지고 있다.<sup>25)</sup> 연암은 1797년 충청도 沔川郡守로 부임한 이후 성 동쪽 향교 앞의 버려진 연못을 준설하고 둑을 쌓아 저수지로 만들었으며, 그 연못 중앙에 작은 섬을 만들어 六角 초가 정자를 세우고 '乾坤一艸亭'이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건곤일초정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면양행견일기」와 「면불일기」는 같은 시기에 쓰여진 책인 반면 『면양잡록』은 그보다 훨씬 전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김윤식이 「면양행견일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면천지역에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농민운동이 전개되는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였기 때문에 『면불일기』에서는 볼 수 없는 당시 농민운동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면양행견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면천지역의 농민운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듣자하니 禮山·德山 등지의 東學黨들이 모두 해산하여 돌아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 대개 都御史의 회유로 귀순한 것이라고 한다.<sup>26)</sup>

湖南의 東徒는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씩 무리를 지었고 소재하는 곳에서 소모를 일으켰다. 오로지 사소한 원한을 보복하려다가 점차 관부에 난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군대의 무기를 가져가고 깃발을 세우고 포를 울리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니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중략> 호서지방의 동도는 사대부를 능욕하고 가옥을 부수어 어떤 사람은 賠償을 지급하고 모면하기까지 하였

25) 정재철(2015), 196면.

26) 『續陰晴史』卷7, 高宗 30年 癸巳 四月初六日. “聞禮·德山等處, 東學黨皆解歸作農, 蓋緣都御史曉諭而歸順云.”

다. <중략> 沔川邑도 14일에 일제히 모여 鄉約長 및 각 동의 上尊位를 선출한다고 하는데, 모두 피할 생각만 하여 마치 일이 어린이들 장난 같다.<sup>27)</sup>

1893년 4월 6일과 그 후 1년 뒤인 1894년 4월 9일의 기록이다. 1894년에 특히 면천 및 내포지방에 동학농민운동이 번졌음을 알 수 있다. 김윤식이 동학에 관련하여 기록한 것은 총 58건에 이르고 있지만 1900년 이후의 것의 제외한다면 대부분 1894년에 기록하였다. 그중에서도 면천지역 동학의 움직임에 관한 서술은 모두 5건으로 1894년에 모아져 있었다.<sup>28)</sup> 이처럼 위에서 인용한 두 날의 기록 외에도 『면양행견일기』에는 여러 차례 동학농민운동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는 면에서 가치가 있다.

『면불일기』에는 당진시의 유적 1호인 君子亭에 대한 기록이 있다. 군자정은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에 있는 정자로, 당진시 지정 향토유적 제1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면천읍성의 뒤쪽이자 천연기념물 제551호로 지정된 면천 은행나무 동쪽 옆에 자리하고 있다. 『면불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군자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의 객사에서 동쪽으로 십여 걸음 거리에 君子池가 있는데 고려 공민왕 때 知郡事 侯 郭獅龍이 지은 것이다. 그 안에는 연못을 심었다. 益齋 李齊賢이 그곳에 찬하기를, '꽃과 열매가 동시에 열리고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군자와 같으므로 癡溪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연못에 '君子'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이다. 오백 년이 지나고 邑誌에만 실려 있을 뿐 사라져서 전해지지 않았는데 英廟 계해년(1743, 영조19)에 이르러서 侯 俞漢宰가 고적을 탐방하여 그 연못을 파고 각을 잡았다. 그 안에 우물을 만들고 둥근 섬을 만들고 섬 위에는 팔각의 작은 정자를 지었다. 이후에 또 계속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자 정자는 훼손되고 연못은 망가졌는데 성상 경진년에 이르러 侯 任百憲이 다시 수리하여 옛터에 정자를 지은 지 지금 16년이 되었다.

27) 『纏陰晴史』卷7, 高宗 31年 甲午 4月 9日. "湖南東徒 聚黨或數千人或萬人. 所在爲擾 專報匪眚. 漸至闖入官府. 輸取軍器. 建旗鳴砲. 東閃西忽. 莫敢誰何. <중략> 湖西東徒. 則專以凌辱士夫. 打破家舍. 或給賠償而得免. <중략> 沔川邑亦於十四日齊會. 出鄉約長及各洞上尊位云. 而舉皆謀避. 事同兒戲."

28) 김남석(2010), 187면.

내가 이 고을에 부임한 다음 해 仲春에 우연히 관노비와 걸어서 정자 위에 올라갔는데 정자와 기둥은 기울었고 연못과 섬은 황폐해져 수초만 뒤섞여 자라나 시들어 있었고 연꽃의 향기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이에 田吏에게 명하여 정자를 띠로 덮게 하고 마침내 성 안팎의 村丁을 보내어 연못을 파니 삼일 만에 일이 끝났다. 연못의 독에 얹어져 있는 돌이 하나 있어 이끼를 쓸고 다듬으니 '郎官湖'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세워서 고정시켰다. <이하생략><sup>29)</sup>

'군자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와 건립배경 및 그 경관이 잘 묘사되어 있다. 郭狷龍은 고려 말 공민왕 때 樞城郡[현 면천군] 知郡事로 부임하여 면천의 여러 고적을 조성한 인물이다. 俞漢宰는 순조 2년(1802) 9월에 면천 군수에 제수된 뒤 군자지(君子池)를 준설한 인물이다.<sup>30)</sup> 任百憲은 고종 17년(1880) 7월에 면천 군수에 제수되었다는 기사가 있다.<sup>31)</sup>

郎官湖는 일명 南湖로, 지금의 湖北省 漢陽에 있는 호수를 가리킨다. 唐 나라 李白이 夜郎으로 귀양을 가 그의 친구 尙書郎 張謂, 沔州牧 杜公, 漢陽宰 王公과 더불어 남호에서 술을 마실 적에, 장위가 이백에게 호수의 이름을 좋게 지어 영구히 전하게 할 것을 청하니, 이백이 술잔을 들어 물에다 붓고 나서 남호의 이름을 낭관호로 개정하였다고 한다. 고사에 등장하는 '沔州牧 杜公'이 沔川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고사를 차용하여 바위에 새긴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에서는 2007년부터 면천읍성 복원사업과 연계해 충남도 기념물 제91호인 면천읍성을 중심으로한 관아와 성안마을, 골정지를 정비하는

29) 『沔紱日記』 1895年 3月 21日. “郡之客舍東十餘武, 有曰君子池, 高麗恭愍王時, 知郡事郭侯狷龍所作, 而種荷其中, 李益齋齊賢, 爲之贊曰, ‘花實同時, 不染於泥, 有似君子, 見愛瀛溪. 此所以池之名君子也, 而後五百餘年, 徒在邑誌, 而堙廢無聞. 至英廟癸亥, 俞侯漢宰, 訪其古蹟, 乃疏其池而方之. 甃其中, 作圓嶼, 嶼之上, 築八角小亭. 後又無續葺之人, 亭毀池廢, 迄于聖上庚辰, 任侯百憲復疏治, 而因舊址築亭, 今爲十有六年矣. 余莅郡之翌年仲春, 偶與官奚, 步登亭上, 軒檻傾敝, 池與荒廢, 只有水草雜生枯萎, 而蓮之香, 無已久矣. 乃命田吏, 覆亭以茅, 遂發城內外村丁, 而疏鑿之. 三日而役訖, 池之畔, 有一仆石, 掃苔蘚而摩挲之, 有‘郎官湖’三字之刻, 立而築之.”

30) 『承政院日記』 純祖 2年 9月 7日.

31) 『承政院日記』 高宗 17年 7月 29日.

일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연암 박지원과 관련한 콘텐츠를 활용해 조선 후기의 실학정신과 박지원의 애민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1단계 복원사업을 완료한 상태이다.

또한 『면불일기』에는 박시순이 객점에 들러 술자리를 가지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로 보아 면천군 일대에 다수의 객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 객점은 객숙 또는 客館이라고도 하는데, 조선시대에 각 고을에 설치하여 지방을 여행하는 관리나 사신의 숙소로 사용했던 장소이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에 殿牌를 안치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왕궁을 향해 망궐례를 행하였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의 정신문화를 말살하고 그들의 식민지 교육을 주입하기 위해 일제는 객사 건물을 일본식으로 개조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후 1969년 현대식 건물로 신축해 객사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데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객사의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처럼 『면불일기』에는 박시순이 군수로 재직해 있는 동안 기록한 다양한 역사적 자료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추후 면천지역의 향토사 복원과 연구를 위한 원천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면불일기』에 기록된 당시의 모습들은 면천의 유적을 고증하고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사적 의미를 더해줄 자료로서 보탬이 될 것이다.

#### IV. 결론

『沔紱日記』는 朴始淳이 면천 군수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1894년 10월 13일부터 1895년 6월 20일까지 9개월 동안 관인으로서의 생활을 기록한 일기이다.

박시순은 고종이 관왕묘를 모시고 궁궐에서 불교 행사를 지내는 일에 대해 지적한 安孝濟의 상소를 거르지 않고 올린 일로 인해 흥원으로 유배를 가게 된다. 흥원에서의 유배생활은 4개월 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

기는 하지만 조정에 염증을 느껴서인지 박시순은 내직에서 근무하지 않고 1894년 10월에 면천 군수로 부임한다. 『면불일기』에 따르면 박시순의 면천에서의 일상은 손님을 맞이하거나 편지를 주고받는 일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교유한 인물로는, 친구 韓興敎와 李鍾大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그 외에는 이웃 마을의 金福漢, 조정의 인사인 金允植, 魚允中, 동갑내기 덕산 군수인 趙斗煥, 영답사 승 月海 등이 주를 이루었다.

사람들과 교유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일 외에는 수령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 종종 보이는데, 客廝에 가서 望賀禮나 朔禮를 거행하거나, 환곡을 봉납하거나, 초토사에게 狀을 올리거나, 향교의 유생 교육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등의 일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조정에서 개정된 조령이 내려왔을 때 술선하여 조령을 실천한 일, 가뭄으로 고생하는 백성을 위하여 일급 차례에 걸쳐 기우제를 지낸 일,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기도를 올린 일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또한 자신이 다스리는 고을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심으로 종종 고을을 순행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기록을 남긴 君子亭에 관한 이야기와 沔陽賦는 독자로 하여금 면천의 유적과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당진군은 2007년부터 면천읍성 복원사업과 연계해 충청남도 기념물 제 91호인 면천읍성을 정비하고 客廝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면천은 우리나라 내포지역의 중심지로서 洪州와 더불어 역사적인 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고장이다. 『면불일기』와 더불어 박지원의 『면양잡록』과 김윤식의 「면양행견일기」가 그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아직까지는 연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면천의 복원사업과 더불어 앞으로는 면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參考 文獻〉

### ■ 원전자료

김윤식, 『續陰晴史』.

박시순, 『沔絨日記』.

박시순, 『雲絨日記』, 임실문화원, 2017.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 ■ 연구논저

기창덕(1995), 「朝鮮時代末의 急性傳染病과 醫療機關」, 『의사학』 제4권 제1호, 대한의사학회, 1~10면.

김남석(2010), 「1894년 충남 면천지역의 동학농민전쟁연구」, 『충청문화연구』 제5집,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79~229면.

김학수(2003), 「한말 관인 박시순의 일기의 현황과 내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회 편, 『韓末 官人 朴始淳日記』 제2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심경호(2020),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종류와 기록자 계층」, 『동아한학연구』 제14집,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391~456면.

정순우·김학수(1999), 「한말 관인 박시순일기의 내용과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회 편, 『韓末 官人 朴始淳日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재철(2015), 「연암의 『면양잡록』 수록 윤가기 시에 대하여」, 『한문학논집』 제40권, 근역한문학회, 195~230면.

## Abstract

### *A Study of Park Si-soon's 『Myeonbul Diary』*

Im, Hyun-jung<sup>\*</sup>

『Myeonbul Diary(沔紱日記)』 is a diary in which Park Si-soon(朴始淳, 1848~1907) recorded his life as a government official for 9 months from October 13, 1894 to June 20, 1895 when he served as governor of Myeoncheon(沔川郡守). Park Si-soon's nickname is Yunwon(允元), his pen name is Gukin(菊人), and his family clan originated from Hamyang(咸陽). Hamyang Park was a brilliant family clan that produced a number of people who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served in government posts for generations.

Park Si-soon was impeached for posting an appeal by Ahn Hyo-je(安孝濟, 1850-1916), and was exiled to Hongwon(洪原), Hamgyeong-do on August 29 and lived there in exile for about 10 months. After a while, he was reinstated in a special pardon, but he was appointed as governor of Myeoncheon in 4 months. Myeoncheon was home to the graves of Park Si-soon's 8<sup>th</sup> ancestors in lineage and was inhabited by many relatives and acquaintances. This regional connection seems to have led to his appointment as governor of Myeoncheon.

The most frequently appeared content in 『Myeonbul Diary』 is about the people who Park Si-soon socialized with. There are many records about meeting local people, friends, and relatives, and exchanging letters. In addition, it also shows various duties he performed as a government official after taking office in Myeoncheon. In particular, the process of a ritual for rain is depicted in detail, and the ritual for the eradication of the disease, which was epidemic at that time, is also seen.

Records such as <Myeonyangbu(沔陽賦)>, which includes the names of 14 myeon(面) of Myeoncheon, and Gunjajeong(君子亭), the first historical site of Dangjin City, provide historical evidence. Therefore, it has value as a source material for restoration and research

---

\* Researcher, Institute of Chinese Character Cultu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dkssud7234@naver.com

of local history in the Myeoncheon area.

【Key words】 Park Si-soon, Myeonbul Diary, Myeoncheon, Myeonyang, Dangjin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완료일 : 12월 6일, 게재확정일 : 12월 22일